

소견서

정·부회장 출마 후보자: 박진환, 장만만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정·부회장 후보로 지원하는 사회학과 박사 1기 박진환, 장만만입니다. 일반대학원 학우의 학업과 복지에 대한 열정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일반대학원 학우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래는 소견서로 역량과 비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경험과 역량: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사회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대학원 학우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학생회에서 활동하면서 조직 운영, 예산 관리, 학생 이슈 대응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더십과 팀워크를 발휘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2. 학생 복지와 의견 수렴: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정·부회장으로 선출되면, 학우의 복지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학우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술 활동 및 연구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 일반대학원 연구실 환경 개선 등의 분야에서 노력하여 학우의 성공과 만족도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3. 학문과 사회 활동의 융합:

일반대학원 생활은 학문적인 발전과 함께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입니다. 저희는 학문과 사회 활동을 융합하여 학우의 창의성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를 통해 학우가 학회, 컨퍼런스,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산학 협력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촉진하여 연구의 실용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4. 개방적이고 다양성 있는 환경 조성:

일반대학원은 다양한 분야의 학우가 모여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정·부회장으로 선출되면, 개방적이고 다양성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학우가 자신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학문적,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반대학원 문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는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정·부회장으로서 일반대학원 학우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도모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대학원 정·부회장으로 선출되면 일반대학원 생활의 질적 향상과 학우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